

주한 외국인 유학생의 주거유형 선택 및 주생활특성 조사 연구

A Study on the Selection of Housing Type and Characteristics of Dwelling for Foreign Students in Korea

안선민*
An, Seon-Min

장상옥**
Jang, Sang-Ock

신경주***
Shin, Kyung-Jo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selection of housing type and the characteristics of dwelling of foreign students' residence in order to provide some information for better housing plans for foreign students in Korea. To analyze characteristics of dwelling,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with 171 students who study in the university located in Seoul, Korea.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Overseas students in Korea can get from their house to school within 30 minutes and they spend more than 9 hours a day at home on average. Housin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overseas students. For the dormitory group, they chose their houses based on fee, distance from the school, stability, etc. The lodging group, chose their houses based on fee, distance from school, and Korean culture experience. The Go-Si-Won group chose their houses based on fee, distance from the school, privacy and so on.

Keywords : Foreign Students in Korea, the Selection of Housing Type, the Characteristics of Dwelling

주요어 : 주한외국인, 주거유형선택, 주생활특성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우수 인력의 확보 및 양성이 향후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각국에서는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이미 1984년에 외국인 유학생 10만 명 수용을 목표로 정부차원의 장기계획을 마련하고 독일 전부터 귀국 후까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영국은 전 세계 영어권 유학생의 유치를 주력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현재 30만 명인 유학생 규모를 미국과 같은 50만 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대대적인 유학생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아닌 중국조차도 해외로부터 외국인 유학생을 상당수 받아들이는 실정이다(국제교육협력관실, 2001).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학생의 유치를 거의 관심을 쏟지 못했으나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는 '해외인적자원개발을 통한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201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5만 명을 유치하기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종합방안(Study Korea 프로젝트)

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기로 하면서 이들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거점 지역별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건립을 장려하였다. 2004년 4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기숙사 수용률은 49.9%로 나머지 50% 이상의 유학생은 대학 외부에서 주거를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기숙사에 입소하지 못한 유학생은 생활비 지출부담 등 열악한 수확 환경에 따른 한국유학 선호도가 감소하므로(국제교육협력과, 2004)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이들을 위한 주거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은 1999년에 6,279명, 2001년에 11,646명, 2003년(1월 1일 기준)에 유학과 어학연수 목적으로 입국한 학생은 14,146명(교육인적자원부)으로 매년 20% 이상 급증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측된다. 그러나 이들의 수적 증가에 대응한 국내대학의 유치 후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국내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장학금 혜택, 기숙사 이용, 외국어 진행 강좌 수, 의료혜택 등 여러 측면에서 유학생 유치 기반이 크게 약한 편이다. 특히 이들을 위한 기숙사도 시설 수준이나 수용 규모면에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여 불만을 사고 있다. 기숙사의 배정 또한 대학 본과정의 재학생 위주로 이루어져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어학연수를 받는 학생들은 기숙사 혜택을 제공 받지 못함으로써 한국 대학의 유학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박혜진, 1997). 아울러 대학 외부의 주거여건(하숙, 자취 등)도 미

*정회원(주저자), 한양대 대학원 졸업

**정회원, 경상대 가정교육과 조교수, 가정학박사

***정회원, 한양대 실내환경환경디자인학과 교수, 학술박사

흡한 편이다.

따라서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이들이 우리나라에 쉽게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적절한 주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나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선택하는 주거유형은 어떠하며 그 속에서의 주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의 정보도 없이 주거계획을 논할 수 없으므로 먼저 이들을 대상으로 주거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파악이 이루어진 후, 그 결과를 기반으로 주거계획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주한외국인 유학생의 주거계획을 위한 전 단계로 이들의 주거선택 유형과 주생활특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는 주한 외국인 유학생의 주생활문화를 이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적절한 주거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주한 외국인 유학생 중 기숙사 혜택이 없어 주거 선택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학연수생을 선정하였다. 조사방법은 질문지조사를 선택하여 서울시 소재 대학교 중 비교적 외국인 유학생이 많이 재학하는 학교 측에 질문지조사를 포함한 자료수집에 대한 협조를 타진한 결과, 이를 수락한 4개 대학(건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을 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고 기타 개인적으로 설문협조가 가능했던 2개 대학(서울대, 연세대)을 포함하여 총 6개 대학을 대상으로 단순 무작위 표본추출을 하였다. 먼저 유학생들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질문지를 배부한 후 기입하게 하여 다시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내용은 <표 1>에 제시되었다.

질문지는 이선희(2000)와 장상옥, 신경주(2003)의 연구를 기초로 선택형과 개방형 질문을 혼합하여 구성하였다. 특히, 개방형 질문은 응답자에게 주거공간에서 느끼는 불편사항과 선호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게 하여 관련 연구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정보수집 한

계를 극복하고 가능한 정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조사는 영문과 한글이 같이 표기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예비조사를 거쳐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2003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조사하였다. 비영어권 유학생의 경우는 조사자가 직접 보충 설명하는 방법을 택하여 조사하였다. 배부된 총 340부의 질문지중 200부(59%)가 회수되었고 부실기재 29부를 제외한 171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개인특성과 주거특성 및 주생활특성, 기타특성의 파악은 빈도와 백분율 등을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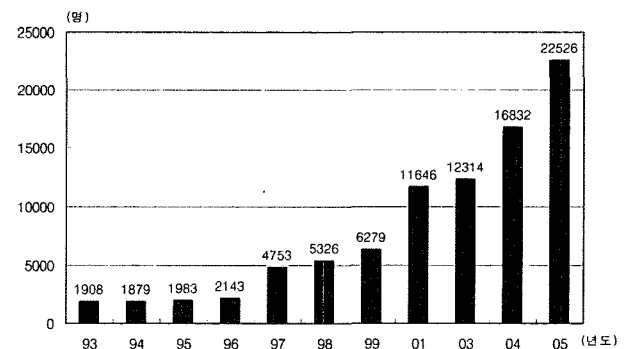
II. 문헌 고찰

주한 외국인 유학생의 현황과 주거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유학생은 93년부터 96년까지는 거의 비슷하였으나 97년 이후부터 1999년까지는 매년 천여 명 가량씩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후 2001년에는 50% 가까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5년 현재 22,500여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전국 218개 대학에서 유학하고 있다(그림 1). 주요 국가별 유학생 현황(2004년 기준)을 보면 아시아 지역 학생들이 전체 유학생의 79.5%(중국 58.1%, 일본 12.4%)로 가장 많았고, 미국을 제외한 기타(16.5%), 미국(4.0%)의 순이다.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주거는 기숙사 시설의 부족 및 주택임대제도의 차이 등으로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매우 높고, 주거관련 정보전달 또한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는 서울 지역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확보되어 있지 않다. 정부 차원에서는 국제교육진흥원 기숙사가 있으나, 시설부족으로 정부 초청 장학생도 전원 수용하지 못하는 형편이며 시설 면에서는 취사, 목욕, 학습, 여가 및 편의시설 등 제반 시설이 미흡하여 학생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교육부, 2001). 이에 반해 선진국의 경우에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 학교당국의 노력, 주택임대제도 등 법적상 차이- 으로 외국인 학생들은 주거 형태, 규모 및

표 1. 질문지의 내용 구성

항 목	조사내용	
거주자 특성 (36문항)	개인특성 (7문항)	국적, 성별,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 생활비 현 한국 거주기간, 총 한국 거주기간(현 거주기간 + 향후 거주 예정기간)
	주거특성 (10문항)	이사횟수, 현 주거 유형, 현 주거의 점유상태, 임대료, 이사계획 여부
	주생활 특성 (16문항)	하루평균 거주시간, 공부장소, 휴식장소, 주말을 보내는 장소, 하루평균 식사빈도, 식사방법 (아침, 점심, 저녁), 세탁빈도, 세탁방법, 세탁건조 방법, 세탁건조장소, 하루평균 샤워빈도, 샤워장소, 통학수단, 통학시간
	기타특성 (3문항)	주거의 중요성, 주거정보 취득원, 현 주거 선택이유(다중응답)



질적인 면에서 대학기숙사나 홈스테이, 임대주택 등의 다양한 선택과, 주변지역의 각종 편의, 여가시설 등 관련 정보도 충분히 제공받는 편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외국인 유학생이 선택하는 주거 유형은 학교 내 부설기관인 기숙사와 민간제공의 하숙집, 자취, 고시원, 민박 등이 있다. 기숙사는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하여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으나 그 수요에 대응한 공급은 낮은 편이다. 하숙과 자취의 경우는 식비, 교통비, 학비 등의 기초생계비에 임대료가 포함되어 경제적인 부담이 있다. 이외에 고시원은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외국인 유학생들이 주거방안으로 선택하고 있다¹⁾.

임대료를 보면 서울시내 대학가 밀집지역인 신촌지역의 경우(2003년) 보증부 월세 원룸은 1,000만원~1,500만원 보증금에 25만원~40만원의 월세가 보편적인데 보증금이 적으면 월세는 40만원~50만원으로 높아지고 보증금이 많으면 월세가 낮아진다. 하숙의 지불비용은 25만원~50만원 수준이며, 고시원은 보증금 없이 월 17만원~35만원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하나 시설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이에 비해 대학 기숙사의 임대료는 하숙 등에 비해 최고 3배 이상 저렴하고, 교내에 위치하여 교통비와 시간비용의 절감 및 기타 편의시설 사용 등의 혜택을 감안하면 기숙사 입사생과 비 입사생간의 임대료 차이는 보다 현저하게 된다(표 2)²⁾.

표 2. 서울 신촌지역 대학가의 임대료 현황(2003) (단위: 만원)

원룸		전세	하숙	고시원 (2-4평)
보증부 월세				
보증금	월세			
1000~1500	25~40	3500	25~50	17~35
200~500	40~50			

III. 연구결과 및 논의

1. 외국인 유학생의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교육수준, 생활비, 출신지역, 총 한국 거주기간(현 거주기간+향후 거주 예정기간)의 개인특성은 <표 3>과 같다.

성별은 남성(46.8%)과 여성(53.2%)의 비율이 비교적 비슷하며, 연령은 20대(83%)가 주류인데 특히 20대 초반(60.2%)이 많다. 교육수준은 대학교(전문대 포함) 재학 및 졸업이 64.9%로 가장 많고, 대학원 이상과 고졸이 각각 17.5%로 전체의 80% 이상이 대학수준 이상의 고학력 집단이다. 월 평균 생활비는 75만원 미만(74.3%), 75만원~100만원 미만(17.5%), 100만원 이상(8.2%)으로 대부분의 월 평균 생활비는 75만원미만이였다. 출신 지역은 아시아계가 가장 많았고(86%), 기타 아시아계(8.8%), 북미

표 3. 외국인 유학생의 일반적 특성

구분		N	%	
성별	남성	80	46.8	
	여성	91	53.2	
	계	171	100.0	
연령	20세미만	9	5.3	
	20-25세	103	60.2	
	26-30세	39	22.8	
	31-35세	12	7.0	
	36세이상	8	4.7	
	계	171	100.0	
교육수준	고등학교	30	17.5	
	대학 및 대학교	111	64.9	
	대학원	30	17.5	
	계	171	100.0	
한달 생활비	50만원 미만	65	38.0	
	50-75만원 미만	62	36.3	
	75-100만원 미만	30	17.5	
	100만원 이상	14	8.2	
	계		100.0	
출신지역	아시아	중국	92	53.8
		일본	40	23.4
		기타	15	8.8
		계	147	86.0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24	14.0	
계	171	100.0		
총 한국 거주기간 (현 거주기간+향후 거주 예정기간)	1년 미만	59	34.5	
	1년-2년 미만	39	22.8	
	2년-3년 미만	23	13.5	
	3년 이상	24	14.0	
	미정	26	15.2	
	계	171	100.0	
현재까지의 한국 거주기간	6개월 미만	71	41.5	
	6개월-1년	44	25.7	
	1년-2년	34	19.9	
	2년-3년	18	10.5	
	3년 이상	4	2.3	
	계	171	100.0	

(7.6%), 유럽계(5.8%)의 순인데, 중국인(53.8%)과 일본인(23.4%)이 주류를 이루어 대체로 우리나라의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지역 분포와 유사한 경향이라 할 수 있다³⁾. 현재까지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은 6개월 미만이 41.5%로 가장 많았고,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25.7%, 1년에서 2년 미만이 19.9%, 2년 이상 3년 미만이 10.5%, 3년 이상이 2.3%로 나타났다. 한국 거주 예정기간은 2년 미만(57.3%)과 2년 이상 및 미정(42.7%)으로 어학연수만 계획하는 비율과 어학연수 후 한국의 대학교에 진학을

1) 국내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주로 고시원을 찾는 실정이다(중앙일보, 2004. 11.9일자).

2) 장경석(2003), 대학생 주거상황과 정책적 대응과제, 주거복지연대.

3)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의하면 국내대학에 유학중인 중국인 학생은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 58%로 가장 많고, 이어서 일본인, 미국의 순이다(중앙일보, 2004. 11.9).

계획하는 비율이 비슷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주한 외국인 유학생은 20대 초반의 대학 및 대학원 재학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남·여학생으로, 한 달 평균 75만원이하의 생활비를 지출한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일본의 아시아계가 가장 많고, 체류기간은 어학연수와 대학교 및 대학원 진학 등 체류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다.

2. 외국인 유학생이 선택하는 주거유형

주한 외국인 유학생이 거주하는 주거유형의 파악에 앞서 이들이 생각하는 유학지에서 주거는 어느 정도 중요한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주 중요하다’가 73.1%, ‘중요하다’가 21.1%로 나타나 조사대상자의 94%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은 임대료 등 생계비 부담이 크면 한국유학의 선호가 감소하므로(교육인적자원부, 2004) 문화와 언어가 다른 외국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근거지인 주거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의 생활특성과 다양한 요구를 배려한 주거가 제공될 때 보다 쾌적한 유학생활이 영위될 수 있어 우수한 외국인 학생의 유치가 용이해질 것으로 본다(표 4).

표 4. 유학지 주거의 중요성

구분	N	%
아주 중요하다	125	73.1
중요하다	36	21.1
보통이다	9	5.2
별로 중요하지 않다	0	0.0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6
계	171	100.0

주거를 선택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관련 정보를 구하는 주요 경로는 친구소개를 통하여 가장 많이 구하고(36.8%), 다음으로 부동산중개업소(19.9%)에서 주거 정보를 얻고 있다. 친구소개인 경우의 이점은 거주경험을 통한 실제적인 정보이므로 신뢰성이 높다는 점과 또 중개 수수료가 절약된다는 점이며, 중개인을 통할 경우는 보다 정확하고 실제적인 정보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외에 학교소개(13.5%), 인터넷(13.5%), 기타(11.2%)의 방법을 통하여 구하는데, 기타는 학교와 거주지 주변의 건물 내외에 붙어 있는 전단지나 안내문을 통해 직접 구하는 경우이다(표 5).

표 5. 주거정보 취득원

구분	N	%
학교소개	23	13.5
친구소개	63	36.8
인터넷	23	13.5
신문	9	5.3
부동산	34	19.9
기타	19	11.2

표 6. 현 주거의 선택 이유

구분	N	%
가격	39	22.8
프라이버시	14	8.2
안전성	22	12.9
방의 크기	14	8.2
한국문화 체험	8	4.7
친구 사귀기	7	4.1
학교와의 거리	26	15.2
편리한 교통	14	8.2
편리한 시설	15	8.7
기타	12	7.0
계	171	100.0

유학생이 선택한 주거유형을 보면 자취가 50.3%로 가장 많고 이어서 하숙(27.0%), 기숙사(12.9%), 고시원(9.8%)의 순으로 자취와 하숙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7). 이와 같은 선택 배경에는 가격(22.8%)이 가장 우선시되고, 이어서 학교와의 거리(15.2%), 안전성(12.9%)의 순으로 중시되었다. 편리한 시설과, 교통, 프라이버시, 방의 크기는 각각 8.2%이며, 기타(7.0%), 한국 문화 체험(4.7%), 친구사귀기(4.1%) 등을 고려하여 주거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보아 외국인 유학생의 현 주거 선택 시의 주요한 고려 사항은 경제성, 근접성, 안전성이라 할 수 있다(표 6).

주거유형별 선택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표 7).

1) 기숙사

기숙사 선택은 가격요인(25.5%)이 가장 크며 이어서 안전성(21.6%)을 꼽고 있다. 대개 기숙사 거주 집단의 구성원은 정부초청 장학생 혹은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학교 측으로부터 기숙사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거나, 유학업체로부터 숙소를 제공받게 되는 학생이 많은 편이었다. 따라서 기숙사는 타 주거유형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하여 이를 장점으로 지적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숙사 임대료는 하숙 등에 비하여 최고 3배 이상 저렴하고 기타 편의시설 사용 등(장경석, 2003)을 고려하면 여러 면에서 비용

표 7. 현 주거유형별 주거선택 이유 (다중응답)

유형 이유	기숙사		하숙		자취		고시원	
	N(%)	순위	N(%)	순위	N(%)	순위	N(%)	순위
임대료	44(25.5)	1	39(22.8)	2	35(20.6)	1	56(32.6)	1
프라이버시	10(3.9)	7	12(7.3)	4	14(8.3)	7	24(14.0)	3
안전성	37(21.6)	2	8(4.9)	9	25(14.5)	2	20(11.6)	4
방 크기	13(7.8)	6	12(7.3)	4	19(11.0)	4	4(2.3)	8
한국문화	0(0)	10	18(10.6)	3	6(3.5)	10	0(0.0)	10
친구사귀기	10(3.9)	9	6(3.3)	10	10(5.7)	8	4(2.3)	8
학교와의거리	20(11.8)	4	42(24.4)	1	18(10.5)	5	28(16.3)	2
교통편리	3(2.0)	7	11(6.5)	7	20(11.8)	3	8(4.7)	6
시설편리	17(9.8)	5	12(7.3)	4	16(9.2)	6	20(11.6)	4
기타	23(13.7)	3	8(5.7)	8	8(4.8)	9	8(4.7)	6

이 절약되는 거주 형태라고 할 수 있다.

2) 하숙

하숙집단은 학교와의 거리(24.4%)를 가장 중시하고 다음으로 가격(22.8%), 한국문화 경험(10.6%)을 고려하고 있었다. 이는 학교와 가까운 입지조건에서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하숙의 장점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3) 자취

자취집단의 경우에도 가격(20.6%)이 가장 중요한 선택 요인이며, 안전성(14.5%), 편리한 교통(11.8%)은 차선의 요인이었다. 자취는 우리나라의 경우 원룸형 주택 유형으로 화장실을 뺀 모든 공간이 하나의 공간으로 개방되며 보통 1-2인이 거주하여 독립적인 주생활이 가능하다. 자취는 주로 대학가 주변에 퍼져 있는 소형주택들이 제공했으나(조선일보, 1996), 근래에는 소형주택에서부터 대규모 오피스텔에 이르기까지 그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4) 고시원

고시원에 거주하는 유학생은 무엇보다 주거비 요인(32.6%)이 가장 높고, 이어서 학교와의 거리(16.3%), 프라이버시(14.0%)를 고려하였다. 고시원은 구획된 실 안에 공부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대부분이 1인1실 위주로 운영된다. 대부분 방이 협소하여 불편함을 느끼나 상대적으로 보증금 없이 전기세, 수도세 등 추가 비용이 없는 저렴한 주거비에 프라이버시를 보장받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유형이라 볼 수 있다.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근래에는 고급화한 형태인 고시텔(고시원+호텔)도 등장하여 고시원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문화일보, 2006. 1월 2일자).

3. 주거유형과 주거특성

외국인 유학생의 주거유형에 따라 주거점유상태, 임대료, 이사 횟수, 이사계획 여부 등의 주거특성과 관련지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8).

주거점유상태는 전반적으로 무보증월세가 가장 많고(49.1%), 이어서 보증부월세(26.4%), 무상(15.3%)의 순인데 주거유형별로는 보증부월세가 가장 많은 자취를 제외하고, 기숙사, 하숙, 고시원은 무보증월세가 가장 많다.

매월 임대료는 30만원 미만이 반 정도(46.0%)이며, 30만원 이상은 29.5%이고, 전세는 10% 미만이다. 주거유형별로 보면 기숙사는 무상이 가장 많고, 하숙은 30-40만원 미만이, 자취는 20만원 미만이, 고시원은 20-3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아 식사 등의 서비스가 포함되는 하숙의 지불비용이 가장 높은 반면 자취는 가장 저렴하였다.

한국 거주동안의 이사 횟수는 첫 주거에 정착한 후 한 번도 하지 않은 경우가 47.9%, 1회가 19.6%, 2, 3회가 각각 16.6%, 16%로 과반수가 1회 이상의 이사경험을 갖고 있다. 주거유형별로 기숙사와 하숙의 경우는 주거 이동이 비교적 적어 안정된 상태이나, 자취는 약 60% 이

표 8. 주거유형과 관련 요인 N(%)

		현 주거 유형				계
		기숙사	하숙	자취	고시원	
주거점유상태	무상	13(61.9)	4(9.1)	7(8.5)	1(6.3)	25(15.3)
	무보증월세	8(39.1)	37(84.1)	20(24.4)	15(93.7)	80(49.1)
	보증부월세	0(0)	3(6.8)	40(48.8)	0(0)	43(26.4)
	전세	0(0)	0(0)	15(18.3)	0(0)	15(9.2)
	계	21(100)	44(100)	82(100)	16(100)	163(100)
매월임대료	무상	13(61.9)	4(9.1)	7(8.5)	1(6.3)	25(15.3)
	20만원미만	5(23.8)	0(0.0)	26(31.7)	4(25.0)	35(21.5)
	20-30만원미만	1(4.8)	9(20.5)	21(25.6)	9(56.3)	40(24.5)
	30-40만원미만	1(4.8)	18(40.9)	9(11.0)	2(12.4)	30(18.4)
	40만원이상	1(4.8)	13(29.5)	4(4.9)	0(0)	18(11.1)
	전세	0(0)	0(0)	15(18.3)	0(0)	15(9.2)
	계	21(100)	44(100)	82(100)	16(100)	163(100)
이사횟수	0회	16(76.2)	27(61.4)	31(37.8)	4(25.0)	78(47.9)
	1회	3(14.3)	8(18.2)	14(17.1)	7(43.8)	32(19.6)
	2회	1(4.8)	7(15.9)	17(20.7)	2(12.5)	27(16.6)
	3회이상	1(4.8)	2(4.5)	20(24.4)	3(18.8)	26(16.0)
	계	21(100)	44(100)	82(100)	16(100)	163(100)
이사계획여부	예	4(19.0)	22(50.0)	46(56.1)	8(50.0)	80(49.1)
	아니오	17(80.5)	22(50.0)	36(43.9)	8(50.0)	83(50.9)
	계	21(100)	44(100)	82(100)	16(100)	163(100)

*매월 임대료는 보증금을 제외하고 매달 지불하는 집세임

상이, 고시원은 75%가 1-3회의 이동을 하여 상대적으로 주거 안정성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잦은 이동은 주거선택이유 및 매월 임대료와 관련하여 설명될 수 있는데 고시원은 저렴한 가격으로 인한 주거수준의 질 저하로 불만족하여 이동이 빈번해진다고 해석된다.

앞으로의 이사계획은 '없음' 50.9%, '있음' 49.1%로 반 정도가 이동을 계획하는데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거유형에서 반 정도가 이사를 계획하나, 기숙사 집단의 계속 거주의사가 가장 높았다. 이로 미루어 보아 기숙사에 거주하는 유학생의 경우는 현 주거에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외국인 유학생을 수용하려는 대학 측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기숙사의 양적 확대를 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주생활특성

1) 주생활특성

외국인 유학생들의 전반적인 주생활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통학시간, 일일 평균 거주시간, 학습, 휴식, 주말을 보내는 장소 등을 파악하였다. 주생활행위 특성은 우리의 주생활문화와 차이가 있어 공간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취사행위, 생리위생행위, 세탁행위의 방식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분석 시에는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지역별 주생활 차이를 보고자 하였으나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아 전반적인 경향으로 살펴보았다.

학교까지의 통학시간은 30분 이내가 66.7%로 가장 많았고, 30분에서 1시간 이내(21.1%), 1시간 이상(12.3%)

표 9. 외국인 유학생의 통학 관련 사항

구분		N	%	
통학시간	30분 이내	114	66.7	
	30분-1시간 이내	36	21.1	
	1시간-1시간30분 이내	15	8.8	
	1시간30분-2시간 이내	5	2.9	
	2시간이상	1	.6	
계		171	100.0	
통학수단	도보		87	50.9
	대중교통	버스	8	4.7
		지하철	61	35.7
		지하철+버스	13	7.6
	자가용		2	1.2
	계		171	100.0

으로 나타나 90% 가까운 유학생이 1시간 이내의 통학거리에 주거지를 정하고 있다. 통학수단은 도보(50.9%), 지하철(35.7%), 버스와 지하철을 함께 이용(7.6%), 버스(4.7%)로 나타나 걸거나 비교적 승차가 용이하고 이동시간이 정확한 지하철을 주로 이용함을 알 수 있다(표 9).

주거에 거주하는 하루 평균 시간은 9시간~12시간 미만 이 가장 많았으며(42.1%), 6시간~9시간 미만은 30.4%, 12시간 이상은 16.4%, 6시간미만은 11.1%로 60% 가까운 유학생이 하루 평균 9시간 이상을 집에서 보내고 있다(표 10). 공부는 주로 학교(50.3%)나 본인의 주거(42.7%)에서 이루어지며, 휴식은 본인의 주거(88.9%)에서 가장 높았다. 주말을 보내는 장소는 학교나 친구집 등 본인의 주거 이외가 56.1%로, 43.9%는 본인의 주거에서 주로 주말을 보내고 있는데 주말에는 시내에서 주로 쇼핑을 하거나, 한국문화를 체험한다는 비율이 높았다(표 11).

식생활 관련 행위를 보면 본인의 주거에서의 식사 빈도는 '2회 정도'가 40.9%로 가장 많았고, 1회가 30.4%, 0회가 19.3%, 세끼 모두가 9.4%로 나타나 조사대상의 80% 이상이 거주 장소에서 1회 이상 식사를 한다.

식사를 끼니별로 보면 아침식사는 토스트와 같은 간단한 직접취사가 36.8%로 가장 많았다. 기숙사나 하숙집에서 제공하는 식사의 경우는 20.5%, 식당에서의 식사는 12.8%, 편의점이나 기타 장소에서 식사하는 경우는 5.3%이며,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비율은 24.6%로 조사대상자의 1/4 정도가 아침식사를 결식하고 있다. 점심식사의 경우, 교내식당을 비롯한 식당 이용이 80.1%로 가장 높았고, 직접취사는 11.1%, 기숙사나 하숙집에서 제공하는 식

표 10. 주거 내 거주시간

구분	N	%	
하루평균 거주시간	6시간 미만	19	11.1
	6-9시간 미만	52	30.4
	9-12시간 미만	72	42.1
	12시간 이상	28	16.4
	계	171	100.0

표 11. 생활행위 별 장소

구분		N	%	
공부장소	본인의 주거		73	42.7
	주거 외 장소	학교	86	50.3
		친구집	7	4.1
		기타	5	2.9
	계		171	100.0
휴식장소	본인의 주거		152	88.9
	주거 외 장소	학교	9	5.3
		친구집	7	4.1
		기타	3	1.8
	계		171	100.0
주말을 보내는 장소	본인의 주거		75	43.9
	주거 외 장소	학교	12	7.0
		친구집	36	21.0
		기타	48	28.1
	계		171	100.0

사는 4.7%,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2.9%, 집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먹는 등 기타의 경우가 1.2%로 나타났다. 저녁식사는 자신이 취사하는 경우(40.9%)가 가장 많았고, 식당(31.6%), 기숙사, 하숙집에서 제공(21.1%)으로 구성된다(표 12). 이로 보아 외국인 유학생은 점심은 주로 외부에서 해결하고 아침과 저녁식사는 본인의 주거에서 취

표 12. 식생활행위

구분		N	%		
주거 내 하루평균 식사빈도	0회	33	19.3		
	1회	52	30.4		
	2회 이상	86	50.3		
	계	171	100.0		
식사방법	아침	직접취사	63	36.8	
		기숙사나 하숙집에서 제공	35	20.5	
		식당이용	교외식당 이용	12	7.0
			교내식당 이용	10	5.8
		기타	식사하지 않음	42	24.6
		기타	기타	9	8.3
	계	171	100.0		
	점심	직접취사	19	11.1	
		기숙사나 하숙집에서 제공	8	4.7	
		식당이용	교외식당 이용	70	40.9
교내식당 이용			67	39.2	
기타		식사하지 않음	5	2.9	
		기타	2	1.2	
계	171	100.0			
저녁	직접취사	70	40.9		
	기숙사나 하숙집에서 제공	36	21.1		
	식당이용	교외식당 이용	35	20.5	
		교내식당 이용	19	11.1	
	기타	식사하지 않음	5	2.9	
		기타	6	3.5	
계	171	100.0			

표 13. 샤워행위

구분	N	%	
샤워빈도	0-1회/1일	135	78.9
	2회이상/1일	36	21.1
	계	171	100.0
샤워시간	오전	29	17.0
	오후	101	59.1
	오전 및 오후	41	24.0
계	171	100.0	

사하는 경향이 보이므로 외국인 유학생의 주거계획 시에는 주거유형별 조건을 감안한 취사공간이 배려되어야겠다.

샤워의 빈도는 하루에 0-1회 정도가 78.9%, 2회 이상이 20.5%이며, 샤워시간대는 오후(59.1%), 오전 및 오후(24.0%), 오전(17.0%)의 순으로 주로 오후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아침 샤워가 많은 주한 서구인들(장상옥, 신경주, 2004)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본 조사대상의 86%가 아시아인임을 감안하면 문화권에 따른 입욕양식의 차이로 볼 수 있겠다(표 13).

세탁행위를 살펴보면, 세탁빈도는 일주일에 2-3회가 가장 많고(58.5%), 일주일에 1회는 25.7%이며, 매일 하는 경우는 10% 가까이 된다. 세탁방법으로는 과반수(50.9%)가 개인세탁기를 이용하며 공동세탁기의 이용 비율은 36.8%이다. 이외는 손빨래를 하거나(8.4%), 빨래방 및 세탁소(3.5%)를 이용하고 있다. 건조방법은 빨래건조대를 가장 많이 이용하며(80.7%) 건조기 사용(6.4%)은 적은 편이다. 건조대 사용 시의 장소는 침실(36.3%), 발코니(22.2%), 세탁실(17.5%), 옥상 및 마당(17%) 순이었다. 이로 보아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일주일에 2-3회 정도 자신이 세탁기로 세탁을 하고, 건조는 프라이버시나 일정한 공간 부족으로 침실 등을 주로 이용한다. 따라서 세탁물 건조는 공동공간보다는 개인공간에서 이루어지도록 공간절약적인 빨래건조대를 설치하거나, 건조기가 설비된 세탁공간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다(표 14).

2) 주거유형 별 주생활특성

주거 유형 별 주생활특성(통학, 주거 거주시간, 주생활 장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거유형 별 통학시간은 모든 집단에서 30분 이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자취의 경우는 30분-1시간 이내의 비율이 약 1/3정도 보여 타 주거유형에 비하여 학교에서 다소 떨어진 거리에도 위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학시간은 기숙사, 고시원, 하숙집단이 자취 집단보다 짧아 통학시간이 절약된다. 통학수단은 기숙사, 하숙, 고시원 집단에서는 도보의 비율이 높는데 반해, 자취집단에서는 대중교통의 이용 비율(63.4%)이 높는데 이는 통학시간이 다소 걸리는 곳에 주거지가 위치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표 15). 주거유형에 따른 거주시간은 전반적으로 집에서 9시간-12시간미만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고시원 집단은 6시간미만이 가장 많아 본

표 14. 세탁행위

구분		N	%	
세탁빈도	매일	16	9.4	
	2-3회/1주	100	58.5	
	1회/1주	44	25.7	
	1회/2주	11	6.4	
	계	171	100.0	
세탁방법	개인세탁기	87	50.9	
	공동세탁기	63	36.8	
	손빨래	14	8.2	
	유평시설 이용	빨래방	21.2	
		세탁소	4	2.3
	기타	1	.6	
계	171	100.0		
건조방법	건조기	28	16.4	
	빨래대	138	80.7	
	기타	5	2.9	
	계	171	100.0	
건조장소	침실	62	36.3	
	발코니	38	22.2	
	세탁실	30	17.5	
	마당 혹은 옥상	29	17.0	
	해당사항 없음	7	4.1	
	기타	5	2.9	
	계	171	100.0	

표 15. 주거유형 별 통학 관련 사항 N(%)

	구분	현 주거유형				
		기숙사	하숙	자취	고시원	계
통학시간	30분이내	17(81.0)	38(86.4)	43(52.4)	14(87.4)	112(68.2)
	30분-1시간이내	1(4.8)	3(6.8)	28(34.1)	1(6.3)	33(20.2)
	1시간-1시간30분	3(14.2)	2(4.5)	8(9.8)	1(6.3)	14(8.6)
	1시간30분 이상	0(0)	1(2.3)	3(3.7)	0(0)	4(2.5)
	계	21(100)	44(100)	82(100)	16(100)	163(100)
통학수단	도보	17(81.0)	34(77.3)	22(26.8)	12(75.0)	85(52.1)
	대중교통이용	4(19.0)	7(15.9)	52(63.4)	4(25.0)	67(41.2)
	자가용	0(0)	3(6.8)	8(9.8)	0(0)	11(6.7)
	계	21(100)	44(100)	82(100)	16(100)	163(100)

인의 주거에서 하루 평균 거주하는 시간은 타 주거유형에 비하여 짧은 편이다. 이는 고시원의 개인실은 비교적 면적이 협소하여 불편하므로 주거에서 머무는 시간이 짧아졌다고 해석된다(표 16).

표 16. 주거유형 별 거주시간 N(%)

	구분	현 주거유형				
		기숙사	하숙	자취	고시원	계
하루 평균 거주시간	6시간미만	3(14.3)	0(0)	10(12.2)	6(37.5)	19(11.7)
	6-9시간미만	8(38.1)	11(25.0)	27(32.9)	3(18.8)	49(30.1)
	9-12시간미만	8(38.1)	24(54.5)	30(36.6)	6(37.5)	68(41.7)
	12시간이상	2(9.5)	9(20.5)	15(18.3)	1(6.2)	27(16.6)
	계	21(100)	44(100)	82(100)	16(100)	163(100)

주거유형 별 공부장소는 주거 외 장소와 본인의 주거에서 하는 비율이 비슷하나 주거 외 장소가 약간 높다. 휴식장소 역시 '자기 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시원에서는 주거 외 장소가 20% 가까이 나타나 협소한 개인 공간보다는 외부에서 휴식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주말을 보내는 장소는 기숙사의 경우 본인의 주거와 집 외의 장소에서의 비율이 유사하고, 하숙과 고시원의 경우에는 집 외의 장소에서 주말을 보내는 경우가 각각 18.4%, 7.4%로 각 집단 내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자취의 경우, 전체의 27.6%가 본인의 집에서 주말을 보낸다(표 17).

표 17. 주거유형별 주생활장소 N(%)

		현 주거 유형				
		기숙사	하숙	자취	고시원	계
공부 장소	본인의 주거	12(57.1)	15(34.1)	35(42.7)	8(50.0)	70(42.9)
	주거 외 장소	9(42.9)	29(65.9)	47(57.3)	8(50.0)	93(57.1)
	계	21(100)	44(100)	82(100)	16(100)	163(100.0)
휴식 장소	본인의 주거	19(90.5)	42(95.5)	71(86.6)	13(81.3)	145(89.0)
	주거 외 장소	2(9.5)	2(4.5)	11(13.4)	3(18.8)	18(11.0)
	계	21(100)	44(100)	82(100)	16(100)	163(100.0)
주말 보내는 장소	본인의 주거	10(47.6)	14(31.8)	45(54.9)	4(25.0)	73(44.8)
	주거 외 장소	11(52.4)	30(68.2)	37(45.1)	12(75.0)	90(55.2)
	계	21(100)	44(100)	82(100)	16(100)	163(100.0)

주거유형별 집에서 하루 평균 식사횟수를 보면 2회 이상은 하숙집단이 타 집단에 비하여 가장 많고(70.5%), 기숙사(33.3%)와 고시원집단(31.3%)은 적었다. 아침식사 방식은 자취와 고시원은 직접 취사가 많고, 하숙은 하숙집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하며, 기숙사집단에서는 기타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점심식사의 경우 모든 유형에서 식당이용이 가장 높았다. 저녁식사 방식을 보면 기숙사와 고시원 집단은 식당을 많이 이용하며, 하숙집단은 하숙집에서 제공되는 식사를, 자취는 직접 취사하는 비율이 높다(표 18).

주거유형 별 샤워 행위에서는 주거유형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오후 시간대에 하루 0-1회 정도의 샤워를 하는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표 19).

주거유형별 세탁빈도는 모든 주거유형에서 1주일에 2-3회 세탁하는 비율이 높았다. 세탁방법은 기숙사, 하숙, 고시원 집단에서는 주로 공동세탁기를 사용하였고, 자취 집단에서는 개인 세탁기의 사용 비율이 높았다. 이 중 공동생활을 하는 기숙사에서 개인세탁기의 비율이 상당 부분 있었는데(43%) 이는 유학업체 등에서 제공하는 사설 기숙사로 이러한 자취형태의 사설 기숙사에서는 개인세탁기를 사용하기 때문이었다.

주거유형에 따른 세탁물 건조방법에는 빨래건조대 사용이 많다. 세탁물 건조 장소는 기숙사의 경우에 반 정도가 침실(47.6%)에서, 30% 가까이는 발코니 및 세탁실

표 18. 주거유형 별 식생활행위 N(%)

	구분	현 주거 유형					
		기숙사	하숙	자취	고시원	계	
주거내 하루평균 식사횟수	0회	8(38.1)	4(9.1)	16(19.5)	4(25.0)	32(19.6)	
	1회	6(28.6)	9(20.5)	28(34.1)	7(43.8)	50(30.7)	
	2회이상	7(33.3)	31(70.5)	38(46.4)	5(31.3)	81(49.7)	
	계	21(100)	44(100)	82(100)	16(100)	163(100)	
식사 방법	아침	직접취사	4(19.0)	10(22.7)	40(48.8)	5(31.3)	59(36.2)
		기숙사, 하숙집 제공	3(14.3)	22(50.0)	6(7.3)	2(12.5)	33(20.2)
		식당이용	2(9.5)	5(11.4)	12(14.6)	2(12.5)	21(12.9)
		기타	12(57.1)	7(15.9)	24(29.3)	7(43.8)	50(30.7)
		계	21(100)	44(100)	82(100)	16(100)	163(100)
	점심	직접취사	4(19.0)	4(9.1)	8(9.8)	2(12.5)	18(11.0)
		기숙사, 하숙집 제공	1(4.8)	3(6.8)	2(2.4)	2(12.5)	8(4.9)
		식당이용	16(76.2)	37(84.1)	68(82.9)	11(68.8)	132(81.0)
		기타	0(0.0)	0(0.0)	4(4.9)	1(6.3)	5(3.1)
		계	21(100)	44(100)	82(100)	16(100)	163(100)
	저녁	직접취사	8(38.1)	7(15.9)	45(54.9)	5(31.3)	65(39.9)
		기숙사, 하숙집 제공	2(9.5)	29(65.9)	2(24.4)	2(12.5)	35(21.5)
식당이용		10(47.6)	7(15.9)	26(31.7)	8(50.0)	51(31.3)	
기타		1(4.8)	1(2.3)	9(11.0)	1(6.3)	12(7.4)	
계	21(100)	44(100)	82(100)	16(100)	163(100)		

표 19. 주거유형 별 샤워행위N(%)

		현 주거 유형				
		기숙사	하숙	자취	고시원	계
샤워 빈도	0-1회	17(81.0)	39(88.6)	58(79.7)	14(87.5)	128(78.5)
	2회이상	4(19.0)	5(11.4)	24(29.3)	2(12.5)	34(21.5)
	계	21(100)	44(100)	82(100)	16(100)	163(100)
샤워 시간	오전	5(23.8)	5(11.4)	16(19.5)	2(12.5)	28(17.2)
	오후	12(57.1)	31(70.5)	41(50.0)	10(62.5)	94(57.7)
	오전 및 오후	4(19.0)	8(18.2)	25(30.5)	4(25.0)	41(25.1)
	계	21(100)	44(100)	82(100)	16(100)	163(100)

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하숙과 자취, 고시원 집단은 40% 이상이 발코니와 세탁실에서, 침실에서는 30%대로 세탁물 건조를 하고 있다(표 20).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주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주거 선택 유형 및 생활특성을 파악하여 주생활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이들에게 적절한 주거 계획 시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한 외국인 유학생은 20대 초반의 남·여학생으로, 대학 및 대학원 재학 이상의 고학력이며 월 평균 생활비는 대체로 75만원 이하 이다. 조사대상의 80%이상

표 20. 주거유형별 세탁행위 N(%)

		현 주거 유형				계
		기숙사	하숙	자취	고시원	
세탁 빈도	매일	1(4.8)	1(2.3)	12(14.6)	1(6.3)	15(9.2)
	2-3회/1주	13(61.9)	29(65.9)	45(54.9)	11(68.8)	98(60.1)
	1회/1주	4(19.0)	12(27.3)	20(24.4)	4(25.0)	40(24.5)
	1회/2주	3(14.3)	2(4.5)	5(6.1)	0(0)	10(6.1)
	계	21(100)	44(100)	82(100)	16(100)	163(100)
세탁 방법	개인세탁기	9(43.0)	15(34.1)	51(62.2)	4(25.0)	79(48.5)
	공동세탁기	12(57.0)	26(59.1)	15(18.3)	11(68.8)	64(39.3)
	손세탁	0(0)	1(2.3)	12(14.6)	1(6.2)	14(8.6)
	유통시설이용	0(0)	2(4.5)	3(3.7)	0(0)	5(3.1)
	기타	0(0)	0(0)	1(1.2)	0(0)	1(0.6)
	계	21(100)	44(100)	82(100)	16(100)	163(100)
건조 방법	건조기	5(23.8)	3(6.8)	16(19.5)	2(12.5)	26(16.0)
	빨래건조대	15(71.4)	41(93.2)	62(75.6)	14(87.5)	132(81)
	기타	1(4.8)	0(0)	4(4.9)	0(0)	5(3.1)
	계	21(100)	44(100)	82(100)	16(100)	163(100)
건조 장소	침실	10(47.6)	16(36.4)	24(29.3)	6(37.5)	56(34.4)
	발코니, 세탁실	6(28.6)	19(43.1)	35(42.7)	7(43.8)	67(41.1)
	마당 혹은 옥상	0(0)	9(20.5)	18(22.0)	2(12.5)	29(17.8)
	기타	4(19.0)	0(0)	0(0)	1(6.2)	5(3.1)
	해당사항없음	1(4.8)	0(0)	5(6.0)	0(0)	6(3.7)
	계	21(100)	44(100)	82(100)	16(100)	163(100)

이 아시아계로 한국 체류기간은 1년 미만부터 3년 이상 까지 다양하다. 외국인 유학생은 유학에서의 주거는 중요하다 인식하며, 주거는 친구나 부동산중개인의 소개로 구하고 있었다. 현 주거의 주요 선택 이유는 임대료, 학교와의 거리, 안전성이다. 특히 기숙사 집단은 임대료 >안전성>기타 요인, 하숙집단은 학교와의 거리>임대료 >한국문화 경험, 자취집단은 임대료>안전성>교통편리, 고시원집단은 임대료>학교와의 거리>프라이버시의 요인 순으로 고려하여 선택하였다. 이로 보아 외국인 유학생은 주거선택 시 무엇보다도 임대료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주거유형에 따라 주거점유상태, 임대료, 이사 횟수, 이사계획 여부에 차이가 있었다. 주거점유상태는 하숙과 고시원은 무보증월세가 많고, 기숙사는 무보증월세와 무상이 반반, 자취는 보증부월세가 많았다. 임대료는 월평균 30만원 미만이 많은데, 기숙사는 무상(61.9%)과 20만원 미만(23.8%)의 거주자가 많고, 하숙은 30-40만원 미만(40.9%)과 40만원 이상(29.5%), 자취는 20만원 미만(31.7%)과 20-30만원 미만(25.6%), 고시원은 20-30만원 미만(56.3%)과 20만원 미만(25.0%)의 거주자가 많아 대체로 하숙비가 가장 높고, 기숙사비는 가장 저렴한 편이다. 이사는 기숙사와 하숙집단은 한 번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반면, 자취집단은 1회 이상 이사가 60% 이상, 고시원집단은 이 보다 더 높은 75% 가까이 된다. 또한 하숙, 자취, 고시원에 거주하는 유학생의 반 정도는 향후 이사

를 계획하고 있으나 기숙사 거주 집단은 그 비율이 낮다.

셋째, 주생활 특성을 보면, 외국인 유학생의 주거는 학교에서 30분 이내의 통학거리에 위치하며, 그들은 집에서 하루 평균 9-12시간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 대부분이 학교나 집에서 공부를 하며, 휴식은 본인의 주거에서, 주말에는 본인의 주거나 학교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시간을 보낸다. 외국인 유학생의 약 반 정도는 아침식사와 저녁식사를 주로 집에서 하고, 점심식사는 대체로 식당에서 해결하고 있다. 샤워는 오후에 1번 정도 하는 비율이 높다. 세탁은 주 2-3회 정도 개인세탁기 또는 공동세탁기로 자신이 하며, 침실이나 발코니에서 세탁물을 건조한다.

넷째, 주거 유형 별 주생활 특성은 통학시간 및 통학수단, 하루 평균 거주시간, 주말을 보내는 장소, 주거 내에서의 하루 평균 식사횟수, 아침 및 저녁식사방법, 세탁방법, 건조 장소에서 차이가 있다. 주거 입지는 자취를 제외한 나머지 집단의 경우 도보로 3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나, 자취집단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30분 이상 1시간 이내의 거리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 하루 평균 집에 머무는 시간은 하숙이 가장 길고 고시원집단이 상대적으로 가장 짧다. 공부장소와 휴식장소는 모든 주거유형에서 비슷한 경향이나 주말을 보내는 장소는 자취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에서는 주거 외의 장소에서 보내는 비율이 더 높다. 주거 내의 식사횟수는 하숙집단의 70% 이상이 2회 이상으로 가장 많고, 기숙사와 고시원집단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아침과 저녁식사는 하숙은 하숙집에서 제공받고, 자취집단은 직접취사를 하며, 고시원집단은 아침은 직접취사를, 저녁은 식당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다. 기숙사집단의 반 정도는 저녁식사를 식당에서 해결하고 있다. 주거유형에 따른 샤워관련행위는 차이 없이 유사하다. 세탁은 세탁빈도와 건조방법에서는 주거유형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세탁은 기숙사, 하숙, 고시원에서는 공동세탁기로, 자취는 개인세탁기로 해결하고 있으며 건조는 기숙사는 침실에서 그 외 주거유형에서는 발코니나 세탁실에서 건조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외국인 유학생의 각 주거유형별 주생활 특징을 바탕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주거계획의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기숙사는 무상의 혜택을 받거나 20만원 미만의 무보증월세로 매우 경제적이며 안전하다고 평가하며, 주거이동이 적고 통학거리는 도보로 30분 이내로 매우 가까우므로 경제적 제약을 지닌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선호될 수 있는 유형이다. 이들의 상당수는 식사를 1회 이상 기숙사에서 하는데, 아침과 점심식사는 어느 정도 직접취사를 하나 저녁식사는 식당에서 하는 비율이 높다. 샤워는 오후에 1번 정도 하며, 세탁은 일주일에 2-3회 정도 공동세탁기를 이용하고, 침실에서 빨래건조대를 이용하여 건조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간계획 시는 이들의 취사특성을 감안하여 단체급식에 더하여 간단한 취사가 가능

한 공동부엌이나 각 개인실 내 취사공간을 고려한다. 아울러 세탁물 건조공간이 부족하므로 건조기가 설비된 공동세탁장이나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여 개인실 내에 공간 절약적인 건조설비가 배려되어야겠다.

하숙은 무보증월세로 30-40만원대의 임대료를 지불하는데 타 주거유형에 비하여 임대료 부담이 높으나 학교와의 거리가 가깝고 한국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데, 주거이동도 적은 편이다. 통학거리는 30분 이내로 가까우며, 외국인 유학생이 하숙집에 머무는 시간은 타 주거유형보다 길다. 식사는 하숙집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2회 이상 하는 경우가 많다. 세탁은 주 2-3회 공동세탁기로 하며 건조는 발코니나 세탁실의 빨래건조대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유형은 다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유학생의 경우 선택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공간 계획 시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타 주거유형보다 길다는 점을 배려하여 개인실의 디자인 및 설비에 주력하도록 한다. 자취는 보증부 월세로 30만원 미만의 임대료를 지불하며 임대료, 안전성, 학교와의 거리 요인으로 선택되는 유형이다. 특히 타 주거유형에 비해 거주기간이 길어서 장기간의 한국거주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선호될 수 있겠다. 식사는 아침과 저녁식사의 직접취사 비율이 가장 높고, 세탁은 개인세탁기로 이루어지며, 발코니나 세탁실의 건조대에서 건조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주거유형의 취사특성을 감안하여 개인실에 부속된 취사공간 계획이 보다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고시원은 무보증월세로 30만원 미만의 임대료로 경제성, 학교와의 거리, 프라이버시 요인으로 선택되는데 거주자의 상당수가 1회 이상의 주거이동을 하여 주거만족이 낮다고 짐작된다. 또한 집에서의 거주시간이 타 주거유형에 비해 가장 짧은 편이며, 식사는 집에서 1회 이상 먹는 경우가 많고 저녁은 주로 식당을 이용한다. 세탁은 공동세탁기로 주 2-3회 하며, 침실, 발코니, 세탁실에서 세탁물 건조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공간계획 시는 취사특성을 감안하여 개인실 내에 간단한 취사가 가능한 공간을 배려하거나 공동취사공간을 강화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주거 관련 선행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먼저 외국인 유학생이 거주하는 다양한 주거유형의 전반적인 사항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심층적인 파악에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주거유형 별 포커스그룹을 선정하여 문화기술적 사례 연구를 통한 구체적인 주거요구 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의 표집이 아시아계에 집중되어 서구유학생의 주생활 파악이 미흡하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문화권을 고려한 조사대상의 선정으로 주한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한 주거요구가 분석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강애띠(1999), GIS를 활용한 신촌 지역 하숙시설의 입지 분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교육부(2001), 외국인 유치확대 종합방안.
3. 교육부(1999), 대학의 국제화 지원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 연구, 교육부 정책연구 과제.
4. 교육인적자원부(2004),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방안
5. 노중희(2003),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를 위한 국가별, 지역별 대학 마케팅전략, 교육인적자원부.
6. 박혜진(1997), 정보화시대 대학교육 국제화에 관한 연구, 이화 여자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야노미치코(2002), 주한 일본 유학생의 스트레스 사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이미혜·배정인(2003), 학생용 주거계획을 위한 자취생들의 주 생활특성과 주거 선호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4(1), 1-10.
9. 이선희(2000), 지방대학교의 학생주거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 디자인학회지 25호, 142-148.
10. 임병화(2000), 대학 기숙사의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 장경석(2003), 대학생 주거상황과 정책적 대응과제, 주거복지 연대.
12. 장상옥·신경주(2003), 주한 미국인의 주택계획을 위한 사례 조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39권 72-82.
13. 장상옥·신경주(2003), Westerners' housing in Korea and checklist for design, AIDIA Journal, Vol. 3. 49-58.
14. 장상옥·신경주(2004), 주한 서구인의 주거공간 사용 행태 및 요구 분석-현관, 욕실, 세탁실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6), 13-22.
15. 정미란·안옥희(2001), 한일여대생의 주거관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2(4), 163-171.
16. 조채희, '국내대학 외국인 유학생 유치기반 부실', 조선일보, 2000.10.29일자
17. Richard Dober(1964), Campus Planning, Reinhold Publishing Co.

(接受: 2005. 9. 9)